

무흘정사의 입지환경과 풍수논리의 해석

박 정 해*

- I. 서론
- II. 한강 정구의 무흘구곡 경영과 무흘정사의 연혁
 - 1. 한강 정구의 무흘구곡 경영과 특징
 - 2. 무흘정사의 의미와 연혁
- III. 무흘정사 입지의 풍수적 분석
 - 1. 무흘정사의 주산과 안산
 - 2. 무흘정사의 혈
 - 3. 무흘정사의 사격
 - 4. 무흘정사의 물길
 - 5. 무흘정사의 좌향
 - 6. 무흘정사의 비보
- IV. 무흘정사의 입지환경과 해석
 - 1. 도가사상과 무흘정사
 - 2. 풍수논리와 무흘정사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흘정사 입지의 풍수적 특징과 도가사상과의 접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흘정사의 입지와 공간구성에는 한강의 풍수인식과 활용성에 대한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한강의 도가적 사고와 풍수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조선중후기에 이르자 풍수역시 관료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유교적 세계관의 틀 내에서 유교적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azy777@hanmail.net

이데올로기와 결합·변용되어 수용되고 있었다. 풍수에 관심이 컸던 한강은 무흘정사를 풍수와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건설하였다.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 건설한 무흘정사는 무흘구곡의 7곡에 해당하는 만월담 근처에 있어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조선 유학자들의 사고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도가적 사고는 세속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은거하면서 자기 수양을 위한 수련과정을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성리학을 통한 삶의 바른 태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때 선비들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선택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집터에 대해서는 고금 선현의 향적을 참고해서 장소가 갖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노력하였다.

◆ 주제어

한강 정구, 무흘정사, 풍수, 도가사상, 무흘구곡

I. 서론

무흘정사는 무흘구곡의 제7곡 만월담 근처에 자리한다. 寒岡 鄭述(1543-1620, 이하 한강)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자 건설한 곳이라, 무흘구곡 중에서 가장 깊은 안쪽에 자리한다. 속세와 거리를 두고 학문탐구와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자 하였으니 접근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풍광과 학문탐구에 매진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유학자들이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선호하게 되는데 退溪(1501-1570)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미 송대의 朱子(1130-1200)가 그리하였고, 수많은 유학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성은 깊다고 할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동경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한계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풍수의 역사도 사람이 살기 좋은 터를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해 왔다. 좋은 터를 찾아 자연과 함께 학문탐구에 매진코자 한 당시 유학자들의 사고속에 풍수에 대한 인식과 활용코자하는 사고는 깊이 자리하고 있었고, 한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현재 한강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흘정사와 관련한 연구는 정우락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¹⁾ 먼저 한강이 무흘정사를 건립하게 된 이유와 과정, 저술활동, 연혁 등을 두루 고찰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흘정사 장서각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는 연구와, 무흘구곡

1)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정사 건립과 저술활동」 『남명학연구』28권, 남명학회, 2009, 273-314쪽

_____, 「山中圖書館 '武屹精舍 藏書閣'의 藏書 性格과 意味」 『영남학』20권, 경북대학교영남문화연구원, 2011, 7-52쪽

_____, 「寒岡 鄭述의 武屹 경영과 武屹九曲 정착과정」 『한국학논집』48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85-125쪽

의 경영과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전재동은 武屹精舍에 소장되었던 藏書의 규모와 경향을 분석하고 있으며,²⁾ 김수진은 한강이 경영한 무흘구곡에 반영된 이상향을 고찰하고 있다.³⁾ 무흘정사 입지에 대한 연구는 한강이 인식한 풍수와 활용성에 대해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강이 중요한 인연을 맺었던 장소이자 입지선정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무흘정사 입지와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통건축의 입지선정은 풍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한 현실은 전통건축입지의 진면목을 살펴보는 데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당시 유학자들이 풍수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한 사상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흘정사 입지의 풍수적 특징과 도가사상과의 접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강의 학문세계를 포함한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고, 무흘정사의 연혁도 아울러 고찰한다. 무흘정사에 반영된 풍수와 공간구성의 논리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1922년도에 건축된 무흘정사를 현장조사와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다. 1922년에 건축한 무흘정사가 한강이 생존 당시에 건설한 서운암과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위치와 환경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앞으로 본래 서운암의 입지환경이 밝혀지면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무흘정사는 홍수, 화재와 같은 재해를 비롯하여 여러 이유로 인해 이축을 하고 있다. 1922년 원래의 터에 다시 복원하게 되는데, 방치한 결과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있다. 무흘구곡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한강과 관련한 무흘정사는 방치

2) 전재동, 손진원, 「정구(鄭述)의 저술(著述)·출판(出版) 활동(活動)과 무흘정사(武屹精舍) 장서각(藏書閣)의 장서(藏書) 경향(傾向)」 『영남학』 60권, 경북대학교영남문화연구원, 2017, 207-239쪽

3) 김수진, 김태수, 심우경, 「寒岡 鄭述(1543-1620)의 武屹九曲 經營과 理想郷」 『한국전통학회지』 26권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8, 59-73쪽

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근래에 복원한 건축물이라 의미가 적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⁴⁾

II. 한강 정구의 무흘구곡 경영과 무흘정사의 연혁

1. 한강 정구의 무흘구곡 경영과 특징

寒岡은 일찍이 주자가 은거한 武夷山에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무흘구곡을 개창하고 경영하게 된다. 주자의 고향과 동일한 지명인 新安에서 태어나 尊朱의 명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武夷志』 저술과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를 지어 주자를 경모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무흘이라는 이름은 한강이 직접 명명한 것으로, 무흘의 중국식 발음이 무이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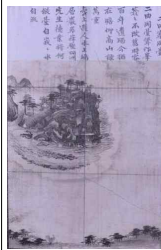

무흘구곡은 한국의 구곡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길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제1곡은 봉비암이고, 제2곡은 한강대이며, 제3곡은 무학정이다. 제4곡은 입암이고, 제5곡이 사인암, 제6곡이 옥류동, 제7곡이 만월담, 제8곡이 와룡암, 제9곡이 용추이다. 구곡의 명칭은 모두 한강이 명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한강이전부터 봉비암과 입암, 무학정, 사인암등은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강대와 만월담, 와룡암등은 한강이 직접 명명한 것이다. 옥류동과 용추는 한강사후에 명명한 곳으로 차츰 명칭이 정착되면서, 한강의 문도나 당대인들에 의해 구곡은 적극적으로 작품화되

4) 무흘정사는 2011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168호)로 지정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무흘정사가 아닌 무흘정사가 속해 있는 토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정작 건축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다.(출처 :김천인터넷뉴스)

5) 정우락, 「寒岡 鄭述의 武屹 경영과 武屹九曲 정착과정」 『한국학논집』48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98-100쪽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寒岡 학단이 일정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33년 裴尙龍(1574-1655)이 무흘 산장으로써 무흘사업을 벌여 무흘정사의 확장을 통해 장서각을 신축하고 있다. 眉叟 許穆(1595-1682)은 1681년 무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스승 한강과 관련된 곳에 편액을 쓰거나, 봉비암과 한강대에는 각석을 새기게 된다. 1716년에는 입암을 비롯하여 옥류동과 수송대, 사인암, 와룡암등의 각자를 새기게 된다. 한강의 曾孫 芝厓 鄭煒(1740-1811)를 중심으로 1784년에 무흘정사를 중건하고 鄭東擘(1732-1792)의 발의에 의해 金相眞이 무흘구곡도를 그리게 된다. 19세기에 이르면 무흘실경과 한강의 구곡시는 하나가 되어 한강의 「양화주부자마이구곡시운십수」가 「무흘구곡시」라 인식하기에 이른다. 20세기에 들어서면 한강이 무흘구곡을 경영했다는 생각이 굳어져 『星山誌』에도 한강의 무흘구곡으로 등재하고 있다.

<표 1> 서운암과 무흘구곡도

				
서운암	1곡 봉비암	2곡 한강대	3곡 무학정	4곡 입암
				
5곡 사인암	6곡 옥류동	7곡 만월담	8곡 와룡암	9곡 용추

무휼구곡은 성주군과 김천시에 걸쳐 각각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성주군에는 1곡에서 4곡에 이르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봉비암과 한강대, 무학정, 입암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공간은 한강의 강학공간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회연초당이 회연서원으로 발전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반면에 김천지역에는 5곡에서 9곡에 이르는 공간으로 사인암과 옥류동, 만월담, 와룡암, 용추등이 해당하는데, 주로 한강의 은거공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무휼 경영이 곧 무휼구곡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는데, 1곡에서 2곡에 이르는 공간은 한강정사와 회연서원이 있는 곳으로 주로 강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3곡에서 6곡에 이르는 공간은 유람공간이라 할 수 있다. 회연정사와 무휼정사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 둘 사이를 왕래하며 자연을 유람하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7곡에서 9곡에 이르는 공간은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즉, 무휼정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은거를 통해 수양하고자 한 한강의 의식이 두드러진 곳이라 할 수 있다.

2. 무휼정사의 의미와 연혁

한강은 은거를 통해 수양을 한 것 외에도 서재경영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31살에 성주에 한강정사를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75세에 대구에 사양정사를 마지막으로 건립하게 된다. 한강의 서재 경영현황을 『寒岡集』 년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강이 건립한 서재경영 현황

지역	교육시설
성주	寒岡精舍(31세), 檜淵草堂(41세), 社倉書堂(49세), 夙夜齋(61세)
김천	武屹精舍(62세)
칠곡	蘆谷精舍(70세)
대구	泗陽精舍(75세)
기타	창녕의 芙蓉齋, 마산의 觀海亭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성주 지역에는 한강정사와 회연초당, 사창서당과 숙야재를 건립하였다면, 김천지역에는 무흘정사를, 칠곡에는 노곡정사를 대구에는 사양정사를 각각 건립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창녕의 부용재와 마산의 관해정을 건립하였다. 이 두 건축물은 한강과 관련이 있으나 직접 건축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문도들이 한강을 위해 건립하거나, 제자들의 강학소로 활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무흘정사는 서운암이라고도 불렀는데, 서운암의 棲雲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구름이 깃든 곳이라는 뜻으로 한강이 깊은 골짜기에 숨어든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雲谷 즉 주

자가 깃든 곳이라는 뜻으로, 한강의 尊朱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1784년 嶺齋 金尙眞(1705-?)이 그린 무흘구곡도에 서운암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건물이 무흘구곡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건물을 새로 지어 기념하기 위해 무흘구곡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무흘산방은 무흘정사의 또 다른 말이다. 현재의 건물은 1922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武屹山房이라는 편액과 함께 凝窩 李源祚(1792-1871)가 쓴 見道齋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무흘산방은 李公擇의 李君山房과 일정한 연관을 나



<그림 1> 무흘산방과 현도재 현판



<그림 2> 1922년 건립한 무흘정사의 모습

타내고 있다면, 현도재의 현도는 한강의 도를 알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寒岡集』을 바탕으로 무흘정사의 개략적인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37년(1604) 만월담 근처에 초가 3칸의 정사를 건립하고 서운암이라 편액하여 서책을 보관한다. 주위에 2칸의 山泉庵도 건립하였다. 선조40년(1607)에 홍수로 말미암아 산천암이 파손되어 승려 인잠이 정사의 서쪽에 다시 세우게 된다. 인조11년(1633) 배상룡 등 성주지역의 선비들이 중심이 되어, 무흘정사 옛터의 아래쪽으로 수백보를 옮겨 무흘정사를 36칸의 규모로 확장하고, 남쪽 10보쯤 되는 곳에 장서각 3동을 세우게 된다. 정조8년(1784) 무흘정사를 옛터로 옮겨 세우고 서운암을 그대로 둔다. 순조10년(1810) 장서각을 무흘정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 세운다. 철종5년(1854) 화재가 크게 일어나 무흘정사는 소실되었으나, 장서각은 다행히 보존된다. 철종13년(1862) 기존의 위치에서 10여리 위쪽으로 옮겨 옛날과 거의 같은 규모로 무흘정사를 새로 짓게 된다. 고종8년(1871) 사액서원 가운데 1인 1원의 원칙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47개소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과 사우는 모두 훼손되는데, 이때 무흘정사도 훼손되고 만다. 임정4년(1922) 아래쪽으로 내려와 무흘정사 옛터를 닦아 4칸의 정사와 포사 약간 동을 짓는다.

Ⅲ. 무흘정사 입지의 풍수적 분석

한강의 풍수인식은 『寒岡集』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풍수에 두루 섭렵하고 널리 통하였다고 한다.⁶⁾ 주로 성리학 탐구에 집중하였지만 풍수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풍수이론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모습조차도 이해하고 있었다.⁷⁾ 그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 건립한 무흘정사의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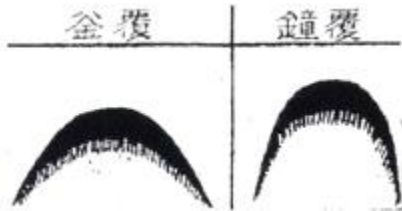
6) 『寒岡集』券3 「寒岡言行錄」類編：先生於諸子百家及醫藥·卜筮·兵書·風水之說 無不歷略該通.

7) 『寒岡集』卷2 「疎」請勿改卜山陵疏 庚子：蓋臣嘗聞地理之家其所以爲說者有二 相賓主拱揖之勢 定龜雀龍虎之形 審聚散離合之情 求融結關鎖之密 此山家之所宗也 用八卦

지를 살펴보면,⁸⁾ 풍수에 바탕을 두고 입지선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무홀정사의 주산과 안산

무홀정사의 주산은 修道山 자락으로 『錦囊經』 「四勢編」의 논리에 따라 우뚝 솟은 모양이다.⁹⁾ 주산은 높이와 형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마련인데,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는 높이와 아름다운 형상을 요구하고 있다. 형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 구성과 오행인데, 풍수



<그림 3> 武曲星
(출처 : 감룡경의통경비주교보)

서별로 다른 분류법을 택하고 있다. 양균송의 『撼龍經』과 호순신의 『地理新法』에는 九星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에 五行의 분류법은 많은 풍수서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명대의 『地理人子須知』가 대표적이다. 이들 풍수서에서 분류한 구성과 오행은 산의 형상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형태에 대한 특징조차 다르게 인식한 것은 아니다.

무홀정사 주산의 형상을 살펴보면, 구성으로는 무곡성이고 오행으로 분류하면 금성체이다. 먼저 『撼龍經』의 내용을 살펴본다.

干支之數 寓推排參錯之妙 建方位向背之名 著逆順吉凶之象 此又山家之所參取也.

8) 『寒岡集』한강연보에 따르면, 무홀정사는 선조 37년(1604)선생의 나이 62세에 완성되었다. 무홀정사는 성주 서쪽 修道山 속에 있는데, 泉石이 정갈하고 人家가 멀리 떨어져 있다. 선생이 이곳에 초가삼간을 세워 서책을 보관하고 편히 쉬는 장소로 삼았으나 그 깊은 뜻은 사람들을 피해 있고 싶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9) 『錦囊經』 「四勢編」 : 玄武垂頭.

武曲의 星峰은 鐘과 釜이니 … 무곡이 端嚴하면 富貴가 있는 곳이니 輔弼은 龍을 따라 厚薄으로 취한다. 眞龍이 行龍해서 五六程이면 떨어질 때에 임해서 剝換되어 輔星이니 북과 같고 도장과 같으며 밝은 달과 같으니 三三 兩兩이 당겨서 연행한다.¹⁰⁾

다음으로 『地理新法』에는 “무곡은 주로 富를 주관하며 旺氣를 얻어 旺盛하다”¹¹⁾고 하였다면, 『지리인자수지』에는 金星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金の體는 둥글고 뾰족하지 않으며 금의 성품은 고요하며 동요하지 않는다.¹²⁾ 官星이니 文章, 顯達, 忠正, 貞然이다.¹³⁾

풍수서에는 案山의 개념을 朱雀砂의 하나로 穴 앞쪽에 있으며, 朝山보다 낮은 산이라고 한다. 사람이 앞에 놓고 사용하는 책상처럼 주산의 책상에 상당하는 것이 안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은 산이 좋다고 한다. 길한 형상으로는 玉几와 橫琴, 眠弓, 玉帶, 執笏, 按劍, 席帽, 蛾眉, 三臺, 官擔, 天馬, 旌節, 書臺, 金箱, 玉印, 筆架, 書筒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산의 역할은 현무에 대해 陰來陽受의 의미 즉 藏風과 生氣의 순화를 이룬다는 점과 현무에 위엄을 더하여 주산의 필수품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¹⁴⁾ 또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물과 바람의 흐름에 있어 기능

10) [唐] 楊均松, 남궁승 역, 『감룡경』, 대훈닷컴, 2009, 222쪽 : 武曲星峰覆鐘釜 … 武曲端嚴富貴窄 輔弼隨龍厚薄取 眞龍若行五六程 臨落之時剝換輔星 如梭如印如皎月 三三兩兩牽聯行.

11) 胡舜申, 김두규 역, 『地理新法』卷上 「武曲論」. 비봉출판사, 2004년. 95쪽 : 武曲主富 以得旺氣而盛也.

12) [明]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臺北 武陵出版社, 1971, 133쪽 : 金之體回而不尖性靜而不動.

13) [明] 위의 책, 130쪽. 官星 主文章顯達忠正貞烈.

14) 村山智順, 崔吉城 옮김,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67-68쪽.

자 역할과, 공간구조의 형성과 공간성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역시 담당한다. 때문에 안산의 형상과 위치, 높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관점의 해석과 의미부여가 이루어진다. 여러 상황논리를 반영한 무흘정사의 案山은 貪狼 목성체로 문필봉의 형상이다.



<그림 4> 文筆峰
(출처 : 감룡경의룡경비주교보)

2. 무흘정사의 혈

천·지·인 삼합을 동양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人氣는 天氣와 地氣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지기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데, 지기는 땅 속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끊임 없이 변화하며 움직인다. 때로는 地心으로 發散과 收縮을 계속하게 되는데, 튀어나온 곳은

산이 되고, 강하게 발산되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며, 지표 아래로 깊이 들어가면 사막이 된다. 반면에 가장 좋은 것은 지표를 운행하는 것이다. 산이 솟고 나무가 울창하고 초록이 빛나고 공기가 맑으면, 그 속에서 인간은 편안하고 만족스럽다.¹⁵⁾ 이러한 특징을 간직한 곳을 혈이라 한다.

혈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활용성이 큰 곳으로 풍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穴을 찾는 데 있다. 혈에 응결된 지기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胎·正·順·強·高·低의 원리를 들

<표 3> 穴 형상 분류(출처: 『地理人子須知』)

<p>穴圖六高 穴窩口脈</p> <p>凡左右兩相案禽 下做此</p>		<p>左右兩相 抱而短者</p>	<p>圖穴突</p>
窩穴	鉗穴	乳穴	突穴

15)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164쪽.

수 있다. 이들의 원리를 무휨정사에 대입하면, 통통하여 마치 아이를 잉태한 모습과 흡사하여 胎이고,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모습이 아니고 반듯한 모습이니 正이다. 박환이 이루어져 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이니 順이고, 땅기운이 응결하여 지기가 충만하니 強이다. 와혈의 경우에는 微突한 부분에 혈을 맺어 물이 들지 않을 정도의 높이를 확보하니 高의 원리에 부합한다. 반면에 바람으로부터 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낮으니 低의 원리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唐代에 등장하여 풍수 논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양균송은 혈의 형상은 주산의 형상에 따른다고 하였다.¹⁶⁾ 양균송의 논리에 따르면, 무휨정사의 무곡성 주산은 와혈을 맺어야 한다. 실제로 무휨정사는 오목한 와혈에 자리하는데,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 해당하는 방이 혈처에 해당한다. 건물전체가 혈처에 자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을 배치하게 되는데, 무휨정사의 경우에는 좌측 방을 혈처에 배치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공간을 정하는 방법론으로 선택과 집중이 활용된 셈이다.

풍수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수가 가진 장점이 무시되고 활용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통건축은 전래된 경험과 특징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가장 풍수적 길지에 건축하고자 하였다.

3. 무휨정사의 사격

송대의 저명한 풍수가인 賴文俊의 『披肝露膽經』에는 “上古부터 시작된 지

16) 楊筠松, 김두규 역, 『撼龍經·疑龍經』, 비봉출판사, 2009, 259쪽 : 高低平地隨星 豈肯妄爲鉗乳穴 穴若不隨龍上星 斷然是假不是眞 請君更將舊墳覆 貪星是乳武鉗形. 이 부분은 譯者도 지적하였듯이 武曲과 巨門의 混同의 문제이다. 『疑龍經』에 묘사된 내용은 武曲과 巨門이 서로 반대로 묘사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張益鏞는 『龍水正經』 60-61쪽에서 巨門星은 鉗釵穴을 맺고 武曲星은 圓窩穴을 맺는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경연도 『정통풍수지리』에서 巨門星은 鉗釵穴을 맺고 武曲星은 圓窩穴을 맺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譯者의 주장처럼 楊筠松이 武曲과 巨門을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리술은 용과 혈에서 연유하였으나, 후세 사람들에 의해 砂水가 더해지고 화복에 대해서 논하고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생기가 주이고 龍穴은 體이며 사수는 끝¹⁷⁾이라고 하였다. 주가 아닌 副에 해당하는 사격은, 혈을 중심으로 주변 전·후·좌·후에 있는 산과 바위를 포함한다. 『錦囊經』 「四勢編」과 「形勢編」에는 사격의 종류와 필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격의 종류를 살펴보면, 좌측을 청룡이라 하고, 우측을 백호라 하며, 앞은 주작, 뒤는 현무¹⁸⁾라고 하였다. 청룡과 백호의 어원은 별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역할은 혈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形勢編」에는 사격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바람이 생기를 흩어버리기 때문에 穴을 호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¹⁹⁾ 즉, 혈의 기가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사격을 발복론의 차원에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격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세적 특징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사격은 혈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와 높이를 가져야 하고, 刑沖破害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稜針殺²⁰⁾과 谷殺,²¹⁾ 風殺,²²⁾ 水殺,²³⁾ 破殺²⁴⁾ 등은 피해야 하는 요인이다. 무휼정사의 사격은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청룡과 우백호를 모두 갖춘 모습이다. 뒤를 책임진 주산은 우뚝한데, 안산도 역시 우뚝 솟은 모습이다. 좌청룡과 우백호는 좌우측에서 기를 흩어버리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높이와 형상을 갖춘 모습이다. 이를 보국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아늑한 공간을 구성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다.

『錦囊經』에는 “앞으로는 응함이 있고 뒤에는 기델 산이 있으며, 좌로는 돌아서 들고 우로서 감싸서 안는 곳”²⁵⁾이라 하였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17) 林徽因, 『風生水起』, 北京:團結出版社, 2007, 46頁 재인용.

18) 『錦囊經』 「四勢編」: 夫葬 以左爲青龍 右爲白虎 前爲朱雀 後爲玄武.

19) 『錦囊經』 「形勢編」: 夫噫氣爲風 能散生氣 龍虎所以衛區穴.

20) 능침살은 뾰족하게 생긴 능선이 혈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한다.

21) 곡살은 곧장 뺨은 골짜기가 혈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한다.

22) 풍살은 혈이 극심한 바람을 맞는 것을 말한다.

23) 수살은 곧고 예리한 물줄기가 혈장을 향해 직사충격하는 것을 말한다.

24) 파살은 까지고 무너진 땅을 말한다.

물이 환포하여 가장 기본적인 이면서도 이상적인 환경조건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때문에 우뚝 솟은 주산과 다정한 안산이 있어야 하고, 좌청룡 우백호가 푸근하게 감싸 안아주어 아늑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거기에 평탄하고 넓은 명당과 생기를 공급하는 명당수가 존재하여야 한다. 좌향은 배산임



〈그림 5〉 무흘정사의 사격
출처 : 네이버 지도에 추가작도

수라는 기본적인 지형조건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하게 된다. 즉, 남향만을 고집하는 절대향이 아닌 지형조건에 형세에 순응하는 상대향의 개념으로 정하게 된다.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췄다면, 비록 북향이라 할지라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향만을 선호하는 주택지의 선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무흘정사는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청룡과 우백호를 갖추고 있어, 아늑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4. 무흘정사의 물길

풍수이론에서 물이 없으면 길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간산을 하면서 먼저 물을 보고 산은 있고 물이 없으면 길지 찾는 것을 멈추라고 하였으니,²⁶⁾ 산과 물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對待의 관계라 할 수 있다.²⁷⁾ 즉, 산과 물은 음양 관계로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전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25) 『錦囊經』. 前應後岡 左回右抱.

26) 長靜道和尚, 『入地眼全書』, 「水法」, 中國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166쪽 : 吉地不可無水 未看山時先看水 有山無水休尋地.

27)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한국학술정보(주), 2003, 250쪽.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반이 되는 산과 물을 단순한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살아 숨 쉬는 생명체로 보고 있는데, 管子는 세상의 모든 생성원리를 음양에서 찾고 있다.²⁸⁾ 『發微論』에도 음양교배를 통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존재하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²⁹⁾ 즉, 양인 물과 음인 산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穴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풍수는 음양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地氣와 生氣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 인식하였다. 『明山論』에도 음양의 이치에서 산과 물의 원리를 풀어가고 있다. 산과 물이 같은 몸체에서 분리된 관계임을 밝히고 있으며, 별개가 아닌 하나였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산과 물이란 음과 양을 일컫는다. 산과 물이 균형을 이루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로운 기운이 가득 찬다. 산과 물이 서로 만나면 음과 양이 모이게 되고 음과 양이 모이면 생기가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땅이다.³⁰⁾

나아가 산이 시작되는 곳을 알려면 물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야하고, 龍이 끝나는 곳을 알려면 물이 머무는 곳을 살피라고 하였는데,³¹⁾ 산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몸의 형체를 이룬 산과 혈맥을 이루는 물은 불가분의 관계로써 서로 합쳐질 때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혈을 맺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물은 각종 풍수서에서 빼놓지 않고 길흉을 논하고 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물은 오행론의 관점에서 형상을 분류하

28) 管子, 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옮김, 『관자』, 소나무, 2006, 185쪽 : 凡萬物陰陽而生而參視.

29) 魯炳漢, 「發微論」, 『古典風水學原論』, 안암문화사, 2006, 463쪽.: 夫孤陰不生 獨陽不成 天下之物 莫不要相對對.

30) 蔡成禹, 김두규 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51쪽. : 山水者 陰陽之謂也 山水相稱 則爲陰陽和 和則爲沖氣 山水聚集 則爲陰陽會 會則爲生氣 所謂吉也.

31) 신정일, 『다시 쓰는 택리지』, 휴먼니스트, 2006, 203쪽.

고 길흉을 분류한다. 環抱와 反背 그리고 균형과 조화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산은 큰데 물이 작다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산은 작는데 물만 크다면, 그 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적당함으로 무장한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무휨정사의 물길은 전면에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음양교배를 통해 혈을 맺을 수 있는 환포하는 모습으로 풍수논리에 부합한다.

5. 무휨정사의 좌향

전통건축의 좌향 결정은 형세풍수와 向法을 중시하는 理氣風水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형세풍수는 주룡의 흐름에 순응하는 主山順應形과 아름다운 안산을 선택해서 좌향을 정한 案山重視形 그리고 주산과 안산의 형상이 서로 부합하는 主·案山混合形이 있다. 반면에 이기풍수에 바탕을 둔 좌향 결정은 당시에 유행하던 향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향법에 의한 좌향 결정법은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최고의 풍수경전인 『청오경』에는 음양으로 향을 정함에 있어서 이치에 어긋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³²⁾ 음양이 부합하여 천지가 서로 통하면 내기는 생명을 싹트게 하고 외기는 형상을 이룬다. 내기와 외기가 서로 승하여 어우러지면 풍수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³³⁾ 음양론의 관점에서 내기와 외기가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좌향을 찾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향법이 있다. 향법이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 배경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향법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무휨정사에 적용된 향법을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풍수를

32) 『靑烏經』: 向定陰陽 切莫乖戾.

33) 『靑烏經』: 陰陽符合 天地交通 內氣萌生 外氣成形 內外相乘 風水自成.

고려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풍수를 고려한 입지선정과 건축이 이루어졌다면 당시에 유행하던 방법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흘정사의 건립당시에 유행하던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적용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무흘정사의 『地理新法』 적용 여부 검토결과

구분	入首龍	入首龍大五行	坐向	得水			破口			附合與否		
				胞胎	九星	吉凶	胞胎	九星	吉凶			
안채	坤(右)	土	酉坐卯向	辰	養	貪狼	吉	丑	帶	文曲	凶	○

무흘정사에 적용된 향을 측정하면, 右旋 坤 入首에 酉坐卯向, 辰得水에 丑破다. 坤 입수는 대오행으로 분류하면 土局에 해당한다. 辰得은 胞胎法으로 養에 해당하고, 九星은 貪狼에 해당하여 길하다. 丑破는 포태법으로 帶에 해당하고 구성으로는 文曲에 해당하여 흉하다. 따라서 길한 방향에서 득수하고 흉한 방향으로 파해야 한다는 호순신의 논리에 부합한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호순신의 지리신법이 무흘정사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무흘정사의 비보

고려왕조의 탄생설화에 등장한 도선풍수의 핵심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비보풍수이다. 비보풍수에 대해 『世宗實錄』에는 역사성과 아울러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新羅의 王業을 볼 때, 천여 년이나 된 것은 造山과 種樹를 가지고 空缺한 데를 메꿔 준 것이며, 州府나 郡縣에 있어서도 또한 모두 裨補한 것이 있사오니, 造山과 種木을 가지고 寬闊한 곳을 보충시킨 것입니다.³⁴⁾

34) 『世宗實錄』세종 30년 무진 3월8일 (癸巳)

『林園經濟志』 「相宅志」 에도 지형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수목을 적절히 培植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고, 『山林經濟』 「卜居」 편에도 “本山の坐向을 먼저 살핀 다음에 門과 路(路)을 정하여 길한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한다.”³⁵⁾고 하였다.

풍수에서 방향을 측정하는 나경패철로 측정 가능한 황천살은 팔요황천살과 팔로사로황천살이 있는데, 팔로사로황천살은 八路³⁶⁾가 向이 될 경우에는 四路方³⁷⁾에서 물이나 바람이 들어오면 黃泉殺이 되며, 四路가 向이 될 경우는 八路方에서 물이나 바람이 들어오면 黃泉殺이 된다는 것이다.³⁸⁾ 八路四路黃泉殺은 1층에 표시된 龍上八殺보다는 凶함이 덜하다 하더라도 꺼려야 한다. 따라서 徐有桀의 『林園經濟志』 「相宅志」 에는 반드시 黃泉水를 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절대 黃泉水를 피해야 한다.

庚丁의 방향은 坤水가, 坤의 방향에는 庚丁수가 그것ियो, 乙丙의 방향에는 巽水가, 巽의 방향에는 乙丙수가 그것ियो, 甲癸의 방향에는 艮水가, 艮의 방향에는 甲癸 水가 그것ियो, 辛壬의 방향에는 乾水가, 乾의 방향에는 辛壬水가 그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八路黃泉四路黃泉이다. 이 열두 방향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만을 따질 뿐 나머지 방향은 금기시하지 않는다. -攷事撮要³⁹⁾

式泉黃路八

黃泉二來此水之家陽最到上其
泉若向當然立廳離丁是堂論法
也立收立如向須脚出忌或武德
必庚之坤則要制制全門水以
山向則申水無依祖版王路未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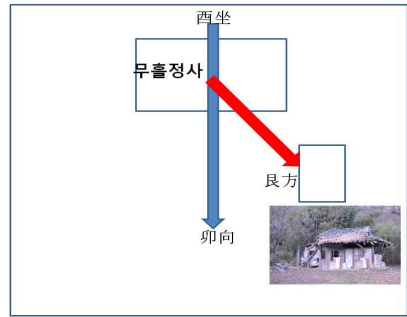
<그림 6> 八路黃泉殺
(출처 : 羅經透解)

35) 洪萬選, 『山林經濟』 卷1 「卜居」 : 先審本山坐向 然後定門及路 取吉避凶.
36) 八路란 八天干을 말하니 陽干인 甲, 庚, 丙, 壬과 陰干인 乙, 辛, 丁, 癸의 여덟 天干을 말한다.
37) 四維에 해당하는 乾, 巽, 艮, 坤을 말한다.
38) 朴奉柱, 『韓國 風水理論의 定立』, 관음출판사, 2002, 115쪽
39) 徐有桀, 안대희 엮어 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114쪽, 『林園經濟』

<표 5> 八路四路黃泉殺 早見表

向	壬子辛戌	癸丑甲卯	艮寅	乙辰丙午	巽巳	丁未庚酉	坤申	乾亥
八路四路	乾	艮	癸甲	巽	丙乙	坤	庚丁	壬辛

西坐卯向인 무흘정사의 팔로사로향 천살은 艮方이다. 이를 비보하기 위해 무흘정사는 <그림 7>과 같이 부속건물을 배치하였다. 『端宗實錄』에는 “무릇 역사(役事)를 함에 있어 먼저 방위를 살피고 경관을 살핀다.”⁴⁰⁾고 하였던 만큼, 생활과 교육을 위한 정사를 건축함에 있어 방위와 경관적인 요소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이기 풍수인 팔로사로향천살과 팔요향천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유학자들에게 있어 풍수는 배제의 대상이 아닌, 필요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7> 무흘정사의 비보도

IV. 무흘정사의 입지환경과 해석

1. 도가사상과 무흘정사

志』「相宅志」, 保景文化社, 1983. : 凡宅湏避黃泉殺 其法庚丁向則坤水 坤向則庚丁水 乙丙向則巽水 巽向則乙丙水 甲癸向則艮水 艮向則甲癸水 辛壬向則乾水 乾向則辛壬水 所謂八路四路黃泉殺也 只論此十二向放水 餘向不忌.

40) 『端宗實錄』, 1년 9월 13일(병인).

朱子는 老子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실례로 자연 속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건설한 백록동서원은 노자사상을 실천적으로 활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자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으로 가득한 한강의 무홀정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無爲自然’으로 대표되는 노자사상은 虛無之論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학문 탐구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유가사상이 일상적인 삶을 규범화하고 질서화하는 속성이 강하여 억제된 생활을 강요하는 경향이 강한 것에 대한 탈출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유가의 치명적인 약점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도가사상이 보완하는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게 되었고, 하나의 완성품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가가 대립 분별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도가는 조화상생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체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편, 인체를 하나의 자연으로 이해하여 그 안에서 生生無窮한 생명의 원리를 터득하고자 하였다.⁴¹⁾ 그러므로 유가적 현실세계와 도가적 내면의 세계는 공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지식인들에 의해 유가와 도가를 넘나드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老子』 제25장에는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며, 도는 자연을 따른다.”⁴²⁾고 하였는데, 자연을 자연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던 노자의 사상이 유가의 규범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즉, 유가의 이면에는 도가가 표리의 관계로 실존하고 있었고, 儒道의 혼합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⁴³⁾

조선유학자들의 사고 속에는 도가적 사고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李重煥(1690- 1752)은 『擇里志』에서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⁴⁾ 자연속에서 조화 상생하면서 바람과 함께 자

41) 韓國道敎思想研究會, 위의 책, 359쪽.

42) 『老子』 제25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43) 韓國道敎思想研究會, 『老莊思想과 東洋文化』, 亞細亞文化社, 1995, 352쪽.

연적인 삶을 살고자 한 바람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되었다. 자연과 벗하여 학문에 매진하는 隱士 풍토적인 전원문학의 시발은 陶淵明(365-427)에 의해 시작되는데,⁴⁵⁾ 그의 시 「飲酒」는 이런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낸 대표적인 시이다.

結廬在人境	띠집이 사람 사는 곳에 있으나
而無車馬喧	수레와 말의 시끄러움이 없다.
問君何能爾	묻노니 어째서 그러한가
心遠地自偏	마음이 떠나 땅은 절로 치우치더라
採菊東籬下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悠然見南山	우두커니 남산을 바라보니
山氣日夕佳	저녁 산의 기운은 아름답고
飛鳥相與還	날던 새들도 짝지어 돌아오는구나
此中有眞意	이중에 참다운 뜻이 있구나
欲辯已忘言	말하고자 하나 이미 말을 잊었노라 ⁴⁶⁾

이 시의 기본을 이루는 사상적 바탕을 주자는 『老子』와 『莊子』로 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았고, 은둔사상과 전원시의 연원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다.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사는 데에는 여러 한계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고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희생된 경우 또는 관직에 뜻이 없어서 자연속에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한강도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무휼정사를 건립하는데, 도가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보편적인 사고의 연장선에 자리한다. 16세기 이후 조선의 선비들은 세속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은거하면서

44) 李重煥,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8, 217쪽. : 夫山水也 者可以怡神暢情者也.

45) 韓國道教思想研究會, 앞의 책, 451쪽.

46) 『陶淵明集』卷3 「飲酒二十首」其五

자기 수양을 위한 수련과정을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성리학을 통한 삶의 바른 태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때 선비들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선택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집터에 대해서는 고금선현의 향적을 참고해서 장소가 갖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노력하였다. 송대의 朱子가 만년을 지냈다는 복건성의 武夷九曲과 武夷精舍는 조선 선비들이 하나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았다.⁴⁷⁾ 한강도 주자의 무이구곡을 모방하여 대가천에 무흘구곡을 개창하였는데, 무흘정사는 무흘구곡⁴⁸⁾ 중에서 제7곡에 해당하는 만월담 부근에 건설하였다. 『寒岡言行錄』에 따르면 한강은 산수의 경치를 매우 좋아하였다고 하는데,⁴⁹⁾ 만월담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七曲層巒繞石灘
風光又是未曾看
山靈好事驚眠鶴
松露無端落面寒

칠곡이라 층층 봉우리 돌여울 돌렀으니,
이러한 경치 일찍이 보지 못하였네.
산신령 일이 좋아 잠든 학 놀라게 하니,
소나무 이슬 무단히 얼굴에 떨어져⁵⁰⁾

대체로 유학자들이 은거하여 학문에 매진한 곳은 풍광이 아름다운 반면에 마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비움과 무정형은 노장사상의 공간구성 원리로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고 정형화하지 않았으며, 자연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하고 공간을 조성하였다. 인공을 가하면서도 인공을 전혀 가하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자연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무흘정사의 막힘없는 공간구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47)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1, 14쪽

48) 무흘구곡은 회연서원 뒤 제1곡 봉비암에서 시작하여 제2곡 갓말소의 절벽, 제3곡 무학동 배마위, 제4곡 영천동 선마위, 제5곡 영천동 사인암, 제6곡 유성리 옥류동, 제7곡 평촌리의 만월담, 제8곡 평촌리의 와룡암, 제9곡 수도리의 용소까지 이어지는데 그 펼쳐진 길이는 약 30km에 이른다.

49) 『寒岡言行錄』卷3 「類編」雜記：先生酷愛山川之勝.

50) 『寒岡別集』卷1 「詩」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 十首

2. 풍수논리와 무흘정사

동양사상의 바탕에는 유가와 불가 그리고 도가사상에 바탕을 둔 요소들이 서로 혼합되어 상호보완적인 문화를 창조하게 된다. 배타성이 강한 서구문화와는 달리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에서 반목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내게 된다. 풍수도 오랜 세월동안 여러 사상과 공존하면서 독특한 형태로 변형되



〈그림 8〉 明堂圖(온양민속박물관)

어 절묘한 공간을 창조하게 된다.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나름의 특성을 존중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음양의 원리와 天文 그리고 신비적인 요소 등을 추가하여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풍수와 도가는 발생배경과 사상적 바탕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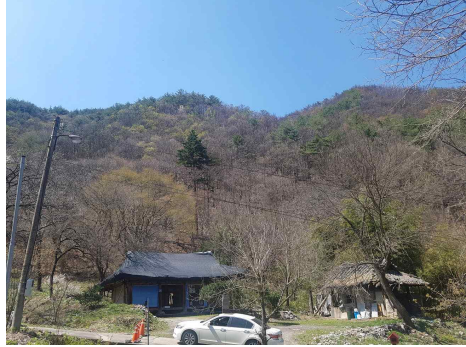
背山臨水는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Utopia⁵²⁾와 대별되는 이상향 武陵桃源⁵³⁾을 창조하고 있다. 무릉도원의 형상을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배산임수하고 주변을 산이 감싸주는 형국으로 풍수 명당도에 등장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서양의 경우에도 같은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테오프라스투스(Thales)는 ‘모든 생물은 번성에 알맞은 모든 에너지나 조건을 갖춘 장소인 oikeios topos를 제시하고 있다. oikeios란 유기체와 그 환경 사이의 조화로운 관련성을 의미하는데 생태학(ecology)의 어원이기도 하

51) 慧綠, 『慧綠風水學』, 中國 百花洲文藝出版社, 2000, 192쪽.

52) 저자가 죽은 뒤인 1551년 영역판이 간행되었으며, 제목 ‘유토피아’는 본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무데에도 없는 나라’라는 뜻이었으나 이 작품을 계기로 ‘이상향’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53) 무릉도원이라는 말은 陶淵明(365-427)이 노래한 『歸去來辭』에 처음 등장한다.

다. 플라톤도 ‘어떤 장소는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혹은 보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인류 문화는 특정한 장소 안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장소가 인간에게 좋으나 나쁘냐 하는 것은 바람과 태양빛에 달렸으며 거기에 물과 토양도 중요하다. 이 네 가지는 신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악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어떤 장소에서는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령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도 한다’고 하였다.⁵⁴⁾ 풍수 최고경전인 『청오경』에도 산과 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여유롭고 풍요롭겠지만, 그 반대라면 망하는 흥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림 9> 무흘정사의 주산-무곡성



<그림 10> 무흘정사의 안산-문필봉

장소의 선택은 비단 풍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연적 입지환경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 걸 맞는 풍수적 가치와 차별성을 실현하였다. 명당 길지로서의 사회적 우위성과 차별성이 사회집단의 위계질서로 인지되고 신분에 맞춰 계층적으로 점유하였고,⁵⁵⁾ 입지와 경관담론을 통해 그들의 권위를 강화하고 장소적 의미를 상징화하는 과정을 통해 배타적 입지공간을 완성하였다. 한강의 무흘정사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현실속에 실천하

54)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27쪽.

55) 최원석,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담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266쪽

였다.

『靑鳥經』에는 “큰 부자가 되는 터는 둥그스름한 봉우리가 금괴처럼 생긴 것으로 재물이 몰려들어옴이 마치 냇물이 흘러 들어옴과 같다.”⁵⁶⁾고 하였던 것처럼, 무곡성은 재물과 관련성이 있다. 푸근한 형상으로 아늑한 공간의 구성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학문에 열중하고자 하였던 한강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안산은 주산과 대비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 탐랑 목성체의 형상이다. 그중에서도 산꼭대기가 뾰족한 문필봉의 형상을 하고 있다. 『靑鳥經』에는 “官貴를 얻을 터는 문필봉이 융성하게 서있다”⁵⁷⁾고 하였는데, 한강에게 있어 문장과 학문을 상징하는 붓의 형상인 문필봉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문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선비정신의 구현이라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걸맞는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문필봉 안산은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학문을 지향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무흘정사 입지의 풍수적 특징과 도가사상과의 접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강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자 무흘정사를 건설하였는데, 일찍이 주자가 은거한 무이산에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무흘구곡을 개창하고 경영하게 된다. 1곡에서 4곡에 이르는 공간은 강학공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5곡에서 9곡에 이르는 공간은 주로 한강의 은거공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3곡에서 6곡에 이르는 공간은 유람공간이라 할 수 있다. 무흘정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은거를 통해 수양하고자 한 한강의 의식이 두드

56) 최창조 역주, 앞의 책, 39-40쪽. 大富之地 圓峰金櫃 具寶沓來 如川之至.

57) [明] 위의 책, 38쪽. 官貴之地 文筆插耳 魚袋雙聯 庚金之位.

러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강은 풍수에도 관심이 컸고 풍수이론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모습조차도 이해하고 있었다. 한강이 건설한 무휨정사는 수도산 자락에 건설하고 있는데, 7곡의 만월담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무휨정사의 입지에는 풍수논리와 부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무휨정사의 주산은 수도산 자락에 해당한다. 무곡 금성체의 형상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錦囊經』에서 우뚝 솟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부응하는 모습이다. 푸근한 형상으로 인한 아늑한 공간의 형성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학문에 열중하고자 하였던 한강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안산은 주산과 대비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전면에 위치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매일 바라보는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학문 탐구를 지향한다는 설립취지를 표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즉, 선비정신의 실천을 장소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둘째, 무휨정사의 혈을 胎正順強高低의 원리에 대입할 수 있어, 풍수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활용하는 모습조차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물길은 環抱와 反背 그리고 균형과 조화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무휨정사의 물길은 포근히 환포하는 형상으로 음양론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넷째, 무휨정사는 당시에 유행하던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적용하여 좌향을 정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호순신의 지리신법이 폭넓게 퍼져 있었고, 활용성을 담보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생활과 교육을 위한 정사를 건축함에 있어 방위와 경관적인 요소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는데, 부속건물을 팔로사로황천방에 건설함으로써 비보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활용하는 모습조차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무휨정사의 입지를 통해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사고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도가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선비들은 세속을 벗어나 한

적한 곳에 은거하면서 자기 수양을 위한 수련과정을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성리학을 통한 삶의 바른 태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때 선비들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선택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집터에 대해서는 고금 선현의 향적을 참고해서 장소가 갖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노력하였다. 송대의 주자가 만년을 지냈다는 복건성의 무이구곡과 무이정사는 조선 선비들에게 있어 하나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무흘정사 입지와 공간구성에는 한강의 풍수인식과 활용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하고자 한 도가적 사교가 고스란히 투영되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7월 1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9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錦囊經』
- 『端宗實錄』
- 『陶淵明集』
- 『山林經濟』
- 『世宗實錄』
- 『靑烏經』
- 『春秋繁露』
- 『寒岡集』

管子, 김필수고대학·장승구신창호 옮김, 『관자』, 소나무, 2006, 185쪽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한국학술정보(주), 2003, 250쪽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 논문, 2001, 14쪽

김수진, 김태수, 심우경, 「寒岡 鄭述(1543-1620)의 武屹九曲 經營과 理想郷」 『한국전통학회지』 26권4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8, 59-73쪽

魯炳漢, 「發微論」, 『古典風水學原論』, 안암문화사, 2006, 463쪽

朴奉柱, 『韓國 風水理論의 定立』, 관음출판사, 2002, 115쪽

박정혜, 한동수 「서원건축의 비보풍수에 관한 연구」 『청운대 건설환경연구소 논문집』, 2011, 31쪽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 武陵出版社, 1971, 133쪽

徐有渠, 안대희 엮어 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114쪽, 『林園經濟志』, 保景文化社, 1983.

신정일, 『다시 쓰는 택리지』, 휴먼니스트, 2006, 203쪽

楊筠松, 김두규 역, 『疑龍經』 「下篇」, 비봉출판사, 2009, 259쪽

楊均松, 남궁승 역, 『감룡경』, 대훈닷컴, 2009, 222쪽

李瀾, 『國譯星湖僿說』, 민족문화추진회, 1989, 135쪽

李重煥,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8, 137쪽, 217쪽

林徽因, 『風生水起』, 北京: 團結出版社, 2007, 46쪽

- 長靜道和尚, 『入地眼全書』, 中國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166쪽
- 전재동, 손진원, 「鄭述의 著述·出版 活動과 武屹精舍 藏書閣의 藏書 傾向」 『영남학』 60권, 경북대학교영남문화연구원, 2017, 207-239쪽
- 정우락, 「한강 정구의 무흘정사 건립과 저술활동」 『남명학연구』 28권, 남명학회, 2009, 273-314쪽
- _____, 「山中圖書館 '武屹精舍 藏書閣'의 藏書 性格과 意味」 『영남학』 20권, 경북대학교영남문화연구원, 2011, 7-52쪽
- _____, 「寒岡 鄭述의 武屹 경영과 武屹九曲 정착과정」 『한국학논집』 48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85-125쪽
- 蔡成禹, 김두규 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51쪽
- 村山智順, 崔吉城 옮김,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67-68쪽
- 崔於中, 『十勝地風水紀行』, 동학사, 1992, 34쪽
-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164쪽
- 韓國道教思想研究會, 『老莊思想과 東洋文化』, 亞細亞文化社, 1995, 352쪽, 359쪽, 451쪽
- 慧綠, 『慧綠風水學』, 中國 百花洲文藝出版社, 2000, 192쪽
- 胡舜申, 김두규 역, 『地理新法』 卷上 「武曲論」. 비봉출판사, 2004년. 95쪽

Abstract

An Interpretation of the Location Environment and Feng shui Logic of Muheuljeongsa Cottage

Park, Jeong-hae

This study aims to examine Feng shui feature and graft onto Taoist thought of the Muheuljeongsa Cottage(武屹精舍)'s location. The location and space composition of the cottage reflects Hangang(寒岡)'s cognition and availability on Feng shui and his Taoist thought.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Feng Shui had widely spread around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 And it was combined, changed, and embraced by Confucian ideology within the framework of Confucian world-view. Han-gang who had a great interest in Feng shui chose and built the Muheuljeongsa Cottage based on his close relationship with Feng Shui. The cottage that was built to keep the distance from the world was famous for its scenic beauty because of its location close to the Man-woldam Pond(滿月潭) that belonged to the Muheulgugog Valley(武屹九曲) on the 7th rank. Taoist thought that was deeply in the head of the Confuci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had made the training progress for self-discipline an important indicator of life, by escaping from the world and staying in a secluded place. They built a small house in search of the ideal place where the mountains and the water harmoniously meet and sought to explore the

right attitude of life through Neo-Confucianism. The classical scholars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choose where they would stay, to which they tried to give meaning by recollecting the ancient and modern sages who had lived in the place before.

Keywords

Hangang Jeong-goo, Muheuljeongsa Cottage, Feng shui, Taoist thought, Muheulgugog Valley